



# 사과(謝過)는 딱 부러지게 하라

니를 비우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나를 채우면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  
내가 나를 높이면 충알이 날아오고 내가 나를 낮추면 칼끝도 무더지게 마련이다.



'제 잘못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준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한다. 사과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사과는 다른 어떤 언어로도 대체할 수 없는 마법의 힘을 가졌다. 사과는 모든 희망과 바람, 또 불안함의 가면을 벗겨낸다. 사과할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지고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진실한 얼굴을 하게 된다. 사과는 더 이상 약자나 패자의 변명이 아니라 '리더의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 사과란 단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

얼마 전 "미안해"라는 사과 한마디가 예상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심리학적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누군가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소한 작은 선물과 "미안해" 한 마디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예상 밖으로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간단한 사과의 말 한마디에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피해자의 마음을 용서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사과의 뜻을 접한 가해자는 이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마이애미, 미네소타, UCLA 대학 합동 연구팀은 33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연구팀은 각기 다른 피해를 입은 실험 참가자에게 관계를 좋지 않게 만든 사람(가해자)이 먼저 다가와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작은 꽃 선물을 사서 전달하게 했다. 그 결과 사과하려고 상대방을 달래고 회유하는 행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가해자를 향한 불만스러운 인식을 줄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피해자는 언쟁 또는 사고에서 벗어나 여전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가치를 느끼고, 다시 한 번 타인과 소통하려는 심리상태

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는 간단한 사과의 말 한마디가 용서를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서 "이같은 사실은 여럿을 때 상승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 상처를 주고받는 배우자나 연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울산 뉴스투데이 2014. 7.15.).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면 상대는 곧 납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줄어들는다. 그리고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내 옳은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박수를 보내준다. 겸손은 남이 시키게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지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

주역에는 '하늘의 도는 자만하는 자를 멸하고 겸허한 자를 이롭게 하며, 땅의 도는 자만한 자를 어지럽히고 겸허한 자에게 순응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탈무드에는 '총명한 사람이 자만하는 순간 지혜는 그 사람을 떠난다.'는 내용이 있다.

1950-2006년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한 2,864명 중 9%에 가까운 255명이 추락사했다. 추락사가 가장 많은 시점은 정상을 밟은 직후(48%)였다. 최고가 되기 무섭게 곧바로 낙상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그래서인지 히말라야의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히말라야는 자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경구가 회자되고 있다.

교병필패(驍兵必敗), 즉 '힘이 세다고 자랑하는 군대나 싸움 중이겨왔다고 거들먹대는 군사는 반드시 패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러 원해서, 알면서도 교만에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잘 나갈수록 자신을 경계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미리미리 특별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사과하라. "제 잘못입니다." 한 마디가 주는 과정은 용서와 화해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 우뚝 서는 적도가 될 것이다.\*



## 단의 조상은 누구이며, 진짜 개천절(開天節)은 언제인가요?

Who is the ancestor of Dan and when is the true GaecheonJeol (Heaven-Opened day, National foundation day) of Korea?

ダンの先祖は誰であり、真の開天節(GaecheonJeol, 建国記念日)はいつでしょうか?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나이다(창세기 49:16~19절) 야곱은 단에게 심판관을 주어 장차 단 민족 가운데서 나오게 될 이긴자 구세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다.

Dan will provide justice for his people as one of the bribes of Israel, I look for deliverance, Lord(Genesis 49:16-19). Jacob passed into Dan the authority of judgement and waited for salvation through the Victor Savior who comes from the Dan tribe.

ダンはイスラエルのある支派とともにその民を審判するだろう。エホヴァよ、救いをお待ちします(創世記49:16~19節)。ヤコブはダンに審判権を当てて将来、ダン民族の中で出てくることになる勝利者、救い主を通じて救いののみ業が成し遂げられることを待ちました。

진정한 의미의 개천절은 성경상 마지막 7번째 비밀의 문을 여는 천사인 이긴자 구세주가 대한민국에서 출현하여 인간의 마음에 불사영생의 첫 번째 새 하늘을 완성한 1980년 10월 15일이다.

It's October 15, 1980 when the Victor Savior, Seventh Angel who opened the seventh seal in the Bible, has come to South Korea and accomplished the first new Heaven of immortality within His mind.

真の意味の開天節(建国記念日)は聖書上、最後の7番目の秘密のドアを開ける天使である勝利者の救い主が韓国で現われて人間の心に不死永生の新しい空を最初に完成された1980年10月15日です。

### 속담 속의 영생학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세상적으로 풀이하면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다'는 뜻이다. 속담은 성담(成談=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영생의 말씀을 34년 전부터 이곳 승리제단에서 매일매일 외치고 계신다. 고로 한국 땅 사역에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언제나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조차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하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태우고 있다. 하나님의 심정에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진짜 생명의 말씀, 밝은 빛이 있는 곳을 못 알아보니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다. 먹을 양

식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어서 영생의 길이 있음에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원시반본의 역사는 동방 간(長)하고도 소사 땅에서 시작도 끝마무리도 승리제단에서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도 이사야서 41장 16절에 '섬들이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라고 했다.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이 중요한 순간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형제들이여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여! 어서 깨어나서 진정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죽음의 길, 어둠에서 깨어나 이 영생의 길을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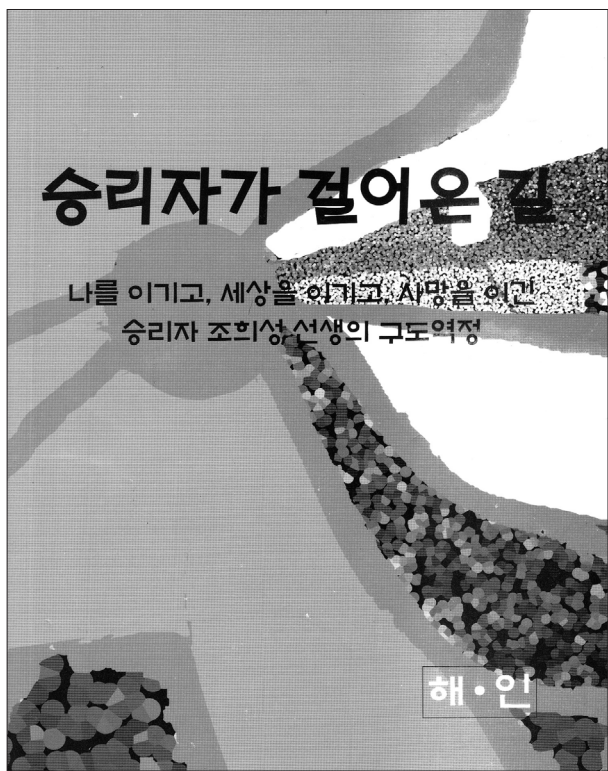
참고은 기자

### 우리말 바꾸기 '못하다'와 '못하다' 구별하기

어느 쪽이 맞는 표기일까?  
① 솜씨가 예전만 못하다 / 솜씨가 예전만 못 하다  
② 운동을 못하다 / 운동을 못 하다  
③ 연락을 못하다 / 연락을 못 하다  
④ 연락을 하지 못했다 / 연락을 하지 못 했다  
이번 호에서의 띄어쓰기는 '못 하다'와 '못하다'에 관해서이다. 이 둘의 띄어쓰기를 구분하기 전에 부사인 '못'과 동사인 '못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야 한다.  
못(부사)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할 수 없거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고 못하다(동사)는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1) 내 동생은 병어리어서 말을 못 한다./ 늦어서 공부를 못 했다./ 나는 주량이 약해서 술을 못 한다.

2) 내 동생은 수줍음이 많아서 말을 잘 못한다./ 그는 공부를 못했다./ 나는 주량이 약해서 술을 못한다.  
위에서 1)은 불가능함을 나타내고 2)는 잘하지 못함을 뜻한다.  
하지만 위의 '못 하다'와 '못하다'와는 별개로 '-지 못하다'를 쓸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즉, '병어리어서 말을 하지 못한다. 나는 배가 아파서 밥을 먹지 못했다.'처럼 부사 '못'이 보조용언에서 사용될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럼 처음 제시한 문장의 정답은 다음과 같다.  
① 솜씨가 예전만 못하다(0) / 솜씨가 예전만 못 하다(X)  
② 운동을 못하다(0) / 운동을 못 하다(0)  
③ 연락을 못하다(X) / 연락을 못 하다(0)  
④ 연락을 하지 못했다(0) / 연락을 하지 못 했다(X)\* 이송우 기자

## 신간 안내



정가: 2,000원

# 승리자가 걸어온 길

승리자 조희성 선생의 구도 역정

열흘씩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도, 30일씩 물 한 모금 잠 한숨도 자지 않는 금식기도를 14번을 했어도 '나'를 완전히 이긴 것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버리고 버려도, 죽이고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길을 찾았고, 드디어 '나'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나'를 이긴 승리자가 되고야 말았다. 승리자 한 사람이 나온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은 것이다. 누구든지 승리자가 걷은 길을 걷기만 한다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영생을 추구하는 구도자의 필독서

우리 민족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가 출현하셨습니다. 그 승리자의 말씀이 담긴 소중한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배포하시게 되면 구세주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tel: 032) 343-9985

도서출판 해·인